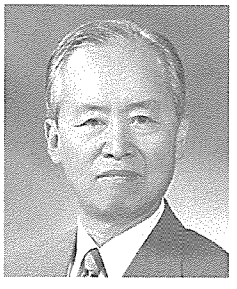
관련 인프라 구축·연구 비효율성 등 제거 기관장 자율로 연구할 수 있게 제도 마련



朴 圭 泰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사회는 의사결정권만 행사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 99년 3월 15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이 되었다. 이는 당시의 IMF 체제하에서 국가적으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연구회에 부여된 임무로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 제시,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의 평가, 소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한해는 설립 초기년도로써 현저한 실적을 내기보다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기관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연구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국가에서 부여한 연구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기획하며 1년을 보냈다.

연구회가 설립되기 전 개별 연구기관은 각각의 개별 이사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개별 기관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임무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면들이 있었다.

그러나 연합이사회 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각 개별 기관은 최소한의 의사결정권만을 이사회로 넘기고 각 기관장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하여 각 개별 연구의 주체는 단축된 의사결정 과정, 강화된 기관장의 권한 등을 토대로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연구회는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소관 연구기관간의 연구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관간 연구의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또한 기관간 장점을 결합하여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유발할 수 있는 체제가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한해는 설립 초기년도로써 소관 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함은 물론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극대화와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관련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연구의 비효율성, 정체성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구조조

정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연구회 설립 이후 가시적인 구조조정 성과로는 통일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관의 연구 신축성을 향상시켰으며, 기관간 협동연구체제 인프라 환경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관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본래의 임무에서 벗어난 기능을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이관하였다.

그 예로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를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한국해양연구소로 이관하였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슈퍼컴퓨터센터를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개발정보센터로 이관하여 기관간의 중복연구 사명을 과감히 조정하였다. 그리고 국가 보안기술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호처리센터에 대한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사 및 소관 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된 경영협의회를 통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개별 연구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별 기관에 다시 Feed Back함으로써 자신의 결과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소관 연구기관은 이를 통하여 연구역량 및 관리기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기관장회의 등을 통하여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환경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액 증대 노력을 하였으며, 소관 연구기관간의 특성·차별화된 연구능력을 합하여 협동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설립 초기의 기관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연구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소관 연구기관과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정부의 중간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연계성 부족

연구회는 대외적인 운영방안과 대내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소관 연구기관 관리방안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자한다.

연구환경의 안정화기반 구축과 기관간 협동연구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유도하고, 과학기술자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세부 운영방안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리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환경 안정화 기반구축을 통하여 연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 R&D 관리 체계화를 통하여 연구비의 안정적인 지원과 연구인력 등을 활용하며,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연구인력의 원활한 수급환경 조성이 필수 조건이며 이의 환경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다.

국가 R&D 관리체계는 범국가적 측면에서 필요기술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고, 목표가 설정되면 분야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져야 하나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국가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의 경쟁체제 구축으로 인하여 지나친 경쟁에 의한 공동연구체제 붕괴가 우려되며, 또한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기보다는 연구생산성의 하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 R&D 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비의 효율적 배분 및 각 개별 연구주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기관간 협동연구를 통한 상승효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분위기 조성만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지만 내년에는 예산확

보가 병행되어 실질적인 협동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관리기법 등을 공유하여 개별 연구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자 한다.

연구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경쟁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소홀히 하는 연구분야를 찾아내어 이를 연구토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기관장 임기 5년으로 연장 건의

연구기관장의 임기를 재조정하며,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기관 발전의 기초로 삼고,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회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연구기관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경과시 기관평가를 통하여 기관장의 임기를 재조정하도록 정부에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평가도 해마다 하는 것보다 1단계는 3년, 2단계는 기관장 임기 말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여 기관장의 임기와 맞물리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기관평가를 통하여 기관장의 신임도 평가자료로써 활용할 예정이다.

엄정한 기관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정밀 재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기관 재도약의 기본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소관 연구기관을 비동기시스템(Asynchronous System)과 유리적연결시스템(The Loosely Coupled System) 형식으로 관리하여 각 개별기관의 특성에 맞는 처방으로 기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기관이 각자 최선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기관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며 이사회의 운영이나 기획평가위원회, 기관장회의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가도록 하겠다.

연구의 방향은 연구회가 제시하고 소관 연구기관은 자율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관의 연구 창의성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다. 또한 연구원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연구과제를 통하여 연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연구원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연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안식과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권위자로 구성된 이사회를 적극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를 배제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이사회 운영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토록 하겠다.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 기관장회의 등 개별 연구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여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관 의사결정체계의 합리화를 유도할 예정이며 소관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간의 매트릭스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운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기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를 위하여 우수연구결과에 대한 홍보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며 연구기관 현황자료 관리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소관 연구기관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내외적으로 기관경영의 전략 및 규범의 표준화를 이끌어낼 생각이다.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소관 연구기관의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연구회 및 연구기관 성과이용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기관은 과감히 도태시킨다는 각오로써 열심히 노력하겠다.